

# 고전과 윤리 논술형 수행평가 자료

## <고전 탐구 논술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대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옛날에 어떤 바닷새가 노나라 교외에 날아들었다. 노나라 임금의 그 새를 맞이하여 묘당에서 연회를 열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진수성찬을 베풀어 환대하였다. 그러나 그 바닷새는 도리어 눈이 어지럽고 마음이 슬퍼서 고기 한 점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그것은 자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는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장자』, 「지락(至樂)」편

매미와 비둘기가 그를 비웃으며 말한다. 우리는 있는 힘껏 날아 올라가야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가지에 머무르지만 때로 거기에도 이르지 못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 그런데 어쩌서 9만 리나 올라가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터무니없는 공연한 짓이다. 교외의 들판에 나가 일하는 사람은 세 끼니의 식사만으로 돌아와도 아직 배가 부르지만 백 리 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걸려 곡식을 찢어야 하고, 천 리 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식량을 모아야 한다. 그러니 이 조그만 날짐승들이 또한 어떻게 대붕의 비상을 알겠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알겠는가? 하루살이는 밤과 새벽을 모르고 여치와 매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 『장자』, 「소요유(逍遙遊)」편

모장과 여희를 두고 사람들은 미인이라 부르지만 물고기는 그들을 보면 깊은 물속으로 숨고, 새는 높이 날아가 버리며, 고라니·사슴은 기운껏 달아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누가 천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입니까? 내가 보건대 인의(仁義)의 단서(端緒)와 시비의 갈림길은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것이니 내 어찌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겠소! - 『장자』, 「제물론(齊物論)」편

<논제1> ‘서술 조건’에 제시된 관련 고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 교육, 게임 등에 인공지능(AI)발달이 가져다줄 영향에 대하여 노자와 장자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논거를 2가지 이상 들어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 <서술 조건>

1. 관련 고전: 『장자』
2. 조건으로 제시된 제시문 속 고전의 내용을 2가지 이상 인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

<탐구 논술2>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대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美대법원, '로 對 웨이드' 공식폐기...“주별로 낙태금지 가능“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후퇴하게 되면서 찬반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판결은 이번에 뒤집히게 됐다. 전체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6명의 대법관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이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날 판결은 이런 결정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2022.06.25.)

낙태죄, 헌법 불일치 2021년 폐지 예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이 단순 위헌,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한다. 따라서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해당 조항들을 계속 적용시키기로 했다.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때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출처 : 시민의소리(http://www.siminsori.com)

<논제2> 위 신문기사를 읽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하나를 택하여, 근거 3가지 이상을 들어 논술하시오. (400자 내외)

<서술 조건>

1. 근거를 3가지 이상 제시할 것.
2. 형식은 첫째, 둘째, 등과 같이 작성하며 문단은 나누지 말 것.